

Original Article

현대적인 관점인 내장계와 체벽계로 바라본營氣와 衛氣에 대한 연구

주다현,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A study of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from the modern perspective of Visceral body and Somatic body

Da Hyun Ju, Byoung-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odernize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from the point of view of Visceral Body and Somatic Body.

Methods: Investigate the areas of body and function of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recorded in the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investigate Visceral Body and Somatic Body that anatomical structure is divided according to function based on the book 『Life and Rhythm』.

Results: Nutrient Qi(營氣) works to nourish the body such as viscera and bowels in the meridian. Defense Qi(衛氣) works to protect the body such as skin, limb joint, eye outside the meridian. The human body is divided into Visceral Body called a vegetable organ and Somatic Body called an animal organ. Visceral body is the organ that manages “nutrition-reproductive” and is divided into the intestine(腸管), blood vessels(血管), and the nephridium(腎管). Somatic Body is an organ that manages ‘sensory-motion’ and is divided into a three-layer structure: the outer layer covering the body surface, the nerve layer connecting the outer layer and the muscle layer, and the muscle layer controlling contraction and movement.

Conclusions: It is estimated that Nutrient Qi(營氣) is similar to Visceral Body, and Defense Qi(衛氣) is similar to Somatic Body.

Key Words : Nutrient Qi(營氣), Defense Qi(衛氣), Visceral Body, Visceral, Somatic Body, Somatic

서론

氣는 『黃帝內經』에만 68종이 등장하는 만큼 의미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아직도 정의가 명료하지 못한 상태이다¹⁾. 중국 고대 철학적인 의미에서 氣는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天地間

의 모든 사물이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 탄생하고, 氣의 운동 변화가 멈추면 인간의 생명활동도 멈춘다고 하였다²⁾. 인체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주요한 氣로는 宗氣, 營氣, 衛氣가 있다. 宗氣는 呼吸과 脈動의 규율성을 주관하여 생명 율동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呼吸과 脈動은 현대적으로는 생명력을

• Received : 20 April 2022 • Revised : 22 May 2022 • Accepted : 19 August 2022

• Correspondence to : Byoung-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00-716, Korea

Tel : +82-42-280-2627, Fax : +82-280-4782, E-mail : kbsoo25@dju.kr

나타내는 활력 징후(Vital sign)이며,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순환 운동이다³⁾.營氣와 衛氣도 실제 인체 생리 대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臟腑肌肉筋骨을 영양하고 보호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氣이므로⁴⁾ 한의학 생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현대적인 의미로는 모호한 면이 있다. 이에 저자는營氣와 衛氣에 대한 현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靈樞·營衛生會』에서는 “人受氣于穀，穀入于胃，以傳與肺，五藏六府，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在脈中 衛在脈外”라고 하였다.營氣와 衛氣는 둘 다脾胃의 運化에 의한 水穀精氣에 의해서 化生된다⁵⁾.營氣와 衛氣를 구분하는 이유는 위치, 작용, 운행 방법, 나타나는 병증이 다르기 때문이다.營氣는 전신을 순행하여 臟腑와 經絡 등에 영양물질을 공급하여 滋養한다고 하며, 衛氣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病邪를 방어하고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며 腠理를 살피우고 開闔을 조절한다고 하였다¹⁾. 또한營氣는 脈 내부를 흘러 항상 일정하게 인체를 영양하는 작용을 하고, 衛氣는 脈 외부를 흘러 몸을 보호한다고 한다.營氣와 衛氣의 운행 방법도 역시 다른데 두 氣가 모두 하루에 50회의 순환을 하며,營氣는 陰分과 陽分의 구분이 없이 순환하는데 비하여 衛氣는 주간에는 陽分을 야간에는 陰分을 각각 25회씩 순환하고 夜半에營氣와 衛氣가 회합한다고 하였다⁶⁾.營氣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병증은 血과 津液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血虛와 津液不足 등으로 나타난다. 衛氣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병증은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外邪의 침입을 쉽게 받고 병이 잘 낫지 않으며 皮膚와 肌肉의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腠理의 開闔이 실조되어 땀이 계속 나게 된다²⁾. 이와 같은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黃帝內經』⁷⁾과 『東醫寶鑑』⁸⁾에 나온營氣와 衛氣의 부위와 기능을 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 임상 한의사도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의학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현대화’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탄생한 배경과 발전해 온 과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의학을 만든 고대인들의 용어와 현대 생물학, 서양의학의 용어를 서로 매칭시키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인간의 ‘생명현상’을 관찰하여 이를 각자의 용어로 설명을 한 것이므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한의학에서 바라본 생명현상과 서양의학에서 바라본 생명현상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안타깝게도 한의학의 단어와 서양의학의 단어를 도식적으로 1대 1 대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바라본 생명현상과 서양의학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바라본 생명현상을 찾아 같은 생명현상을 표현한 부분을 확보한다면 동서양의 연결 또는 한의학의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척추동물의 해부학과 발생학 연구에서 흔히 접하는⁹⁾ ‘Visceral Body와 Somatic Body’라는 인체 구분법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 인체를 식물적인 부분과 동물적인 부분으로 양대별을 하고 있는데, 척추동물의 감각운동 회로는 환경을 감지하고 신체 움직임을 형성하여 반응하는 Somatic Body와 내부 환경을 감지하고 생명 기능을 조절하여 반응하는 Visceral Body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¹⁰⁾. Visceral Body는 식물성 기관 또는 식물 기관(vegetative organ)이라고도 불리는데, 식물과 동물에 모두 존재하며 생물 본래의 활동인 ‘영양-생식’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Somatic Body는 동물성 기관, 동물 기관(animal organ)이라고도 불리는데 식물에서는 볼 수 없고 동물에만 존재하는 ‘감각-운동’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¹¹⁾.

구조의 병리학적 변화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¹²⁾ 등 기능은 구조를 담보로 한다¹³⁾. 구조와 기능은 서로 뗄 수가 없다. 신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몸의 각 부위들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부학적 배경(구조)에 관한 지식을 충

분히 갖추어야 한다¹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營氣와 衛氣의 기능에 따른 생명현상이 주로 발현되는 주 활동 부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것이며, 기능에 따라 인체를 구분한 visceral body와 somatic body의 구조적인 구분이 상호 의미적으로 유사함을 밝혀 營氣와 衛氣를 현대적 의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黃帝內經』과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하여 營氣와 衛氣를 조사하였다. 『黃帝內經』은 서한(西漢)시대에 정기론(精氣論), 음양오행학설 등의 이론체계 아래 정리되어 하나의 책으로 엮여진 것으로,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黃帝內經』의 이론과 원칙 및 그에 바탕을 둔 기술 및 방법론을 기초로 이천 여 년 동안 역대 의가들이 끊임없이 실천, 탐색, 발명해 오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기¹⁵⁾ 때문에 선택하였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이 그 콘텐츠를 공유하면서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국의 문화, 관습, 역사, 정치철학에 따라 변형 발전되면서 국가별 특색을 보이는데, 한국 한의학의 특징은 『東醫寶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¹⁶⁾. 한국 한의학의 교육이나 임상이 대개 『東醫寶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東醫寶鑑』을 선택하였다. 또한 『黃帝內經』에 서술된 이론이 근대 『東醫寶鑑』으로 변천되면서 실제 임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두 책을 선택하였다. 『黃帝內經·素問』과 『黃帝內經·靈樞』에서 營氣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營氣, 榮氣, 營, 榮이 들어간 모든 문장을 찾았다. 그 중에서 井榮俞經絡 중 榮의 오·탈자로 사용된 것, 脈象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 기르다·영양하다의 한자 뜻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하였다. 衛氣도 마찬가지로 『黃帝內經·素問』과 『黃帝內經·靈樞』에서 衛氣, 衛가 들어간 모든 문장을 찾았다. 그중에서 ‘호위하다’의 한자 뜻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하였다. 『東

醫寶鑑』에서도 營氣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營氣, 榮氣, 營, 榮이 들어간 모든 문장을 찾았다. 그중에서 井榮俞經絡 중 榮의 오·탈자로 사용된 것, 脈象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 血에 대한 내용인 것, 기르다·영양하다의 한자 뜻으로 사용된 것, 혈자리 이름으로 사용된 것, 약재 이름으로 사용된 것, 처방명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하였다. 衛氣도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에서 衛氣, 衛가 들어간 모든 문장을 찾았다. 그중에서 호위하다의 한자 뜻으로 사용된 것, 혈자리 이름으로 사용된 것, 책 제목으로 사용된 것, 처방명으로 사용된 것, 나라 이름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였다. 『黃帝內經』은 법인문화사에서 나온 『뜻으로 풀이 黃帝內經』을 참조했으며, 『東醫寶鑑』은 동의보감출판사에서 나온 『東醫寶鑑』을 참조하였다.

도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해부학자이자 자연철학자인 일본의 ‘미키 시게오’는 모든 생명체가 태곳적 우주의 리듬을 품고 있는 소우주(小宇宙)¹⁷⁾라고 언급하며 동양의학국제연구재단에서 강연도 하고 동양과 서양 의학의 기원에 대해 고민을 하는 등 양·한방의 접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키 시게오의 저서 『생명체 리듬』¹¹⁾은 복강신경절로 인해 내장계와 체벽계로 나뉘지는 해부학적 구조를 기능으로 구분하여 인체를 크게 2분류로 나뉘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양·한방의 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 주로 인용하였다. Visceral body는 ‘내장계’로, somatic body는 ‘체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본 론

1. 營氣와 衛氣의 부위

1) 營氣의 부위

『黃帝內經·素問』 81편 중 15편, 『黃帝內經·靈樞』 81편 중 22편에서 營氣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 『東醫寶鑑』 113門 중 43門에서 營氣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부위’는 營氣가 인체를 순환하는 부위와 작용을 하는 부위에 대한 내용을 뜻한다. 『素問·調經論』에서는 營氣가 血과 관계있음을 말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營氣가 脾와 관계있음을 말하였고, 『靈樞·決氣』에서는 營氣가 脈과 관계있음을 말하였다. 『靈樞·營衛生會』와 『東醫寶鑑·血·陰血生於水穀』에서는 營氣가 中焦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와 『靈樞·衛氣』와 『東醫寶鑑·氣·氣生於穀』과 『東醫寶鑑·脈·脈字有義』에서는 營氣가 脈 내부를 다닌다고 하였다. 營氣가 中焦에서 나온다는 것과 營氣가 脈 내부를 다닌다는 것은 『黃帝內經』과 『東醫寶鑑』 모두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이론과 임상 둘 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營氣가 脈 ‘내부’를 다닌다는 것은 『黃帝內經』에서도 2편 이상, 『東醫寶鑑』에서도 2門 이상에서 서술된 것으로 보아 營氣의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營氣의 부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營氣는 中焦에서 나와 脈 내부를 다니며 血, 脾, 脈 등을 돌아다닌다 (Table 1).

2) 衛氣의 부위

『黃帝內經·素問』 81편 중 15편, 『黃帝內經·靈樞』 81편 중 26편에서 衛氣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 『東醫寶鑑』 113門 중 46門에서 衛氣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부위’는 衛氣가 인체를 순환하는 부위와 작용을 하는 부위에 대한 내용을 뜻한다. 『素問·調經論』에서는 衛氣가 氣와 관계있음을 말하였고, 『靈樞·脹論』에서는 衛氣가 分肉과 관계있음을 말하였고, 『靈樞·邪客』에서는 衛氣가 四末, 分肉, 皮膚과 관계있음을 말하였고, 『靈樞·通天』에서는 衛氣가 筋과 皮와 관계있음을 말하였다. 『靈樞·營衛生會』에서는 衛氣가 下焦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와 『靈樞·衛氣』와 『東醫寶鑑·氣·氣生於穀』과 『東醫寶鑑·脈·脈字有義』에서는 衛氣가 脈 외부를 다닌다고 하였다. 衛氣가 脈 외부를 다닌다는 것은 『黃帝內經』과 『東醫寶鑑』 모두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이론과 임상 둘 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衛氣가 脈 ‘외부’를 다닌다는 것은 『黃帝內經』에서도 2편 이상, 『東醫寶鑑』에서도 2門 이상에서 서술된 것으로 보아 衛氣의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또한 分肉과 皮膚가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 衛氣와 관계가 많은 부위라고 추측할 수 있다. 衛氣의 부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衛氣는 下焦에서 나와 脈 외부를 다니며 氣, 分肉, 皮膚, 四末 등을 돌아다닌다 (Table 2).

2. 營氣와 衛氣의 기능

1) 營氣의 기능

기능은 營氣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뜻한다. 『靈

Table 1. The Areas of body of Nutrient Qi(營氣) recorded in the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Book	Areas of body
黃帝內經	素問·調經論 刺此者, 取之經隧, 取血於營, 取氣於衛
	靈樞·本神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藏不安, 實則腹脹, 經澀不利
	靈樞·營衛生會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靈樞·營衛生會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于中焦, 衛出于下焦
	靈樞·決氣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
	靈樞·衛氣 其精氣之行于經者, 爲營氣
東醫寶鑑	氣·氣生於穀 榮在脈中 衛在脈外
	血·陰血生於水穀 <又>曰 榮出於中焦
	脈·脈字有義 榮行脈中 衛行脈外

樞·經脈』과 『靈樞·營衛生會』와 『靈樞·天年』에서는營氣와衛氣를 한 번에 언급하여 둘의 기능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넘어간다. 『素問·痺論』과 『東醫寶鑑·血·陰血生於水穀』에서는營氣를水穀之精氣라 하며五藏을 조화롭게 하고六府를 기르며脈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와 『東醫寶鑑·氣·氣生於穀』에서는營氣를清하다고 하였다. 『靈樞·營衛生會』에서는營氣가血로化하여몸을 봉양한다고 하였고, 『靈樞·邪客』에서는營氣가津液으로 스며들어脈으로 들어가血로化한다고 하며四末과五藏六府를 영양한다고 하였다.營氣가水穀之精氣로清하며五藏을 조화롭게 하고六府를 기르며脈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黃帝內經』과『東醫寶鑑』모두에서 서술된 내용

으로 이론과 임상 둘 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營氣가血로化하여몸과五藏六府를 영양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 이것이營氣의 주요 기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營氣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營氣는水穀之精氣의 맑은氣로脈내부를 다니며五藏을 조화롭게 하고六府를 기르며몸을 영양한다.血로化하여전신을 조화롭게 하고四末을 영양하기도 한다 (Table 3).

2) 衛氣의 기능

기능은衛氣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뜻한다. 『靈樞·經脈』과 『靈樞·營衛生會』와 『靈樞·天年』에서는營

Table 2. The Areas of body of Defense Qi(衛氣) recorded in the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Book	Areas of body
黃帝內經	素問·調經論 刺此者，取之經隧，取血於營，取氣於衛
	素問·調經論 病在氣，調之衛
	靈樞·營衛生會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靈樞·營衛生會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皆何道從來？ 歧伯答曰 營出于中焦，衛出于下焦
	靈樞·脈論 衛氣之在身也 常然並脈循分肉
	靈樞·衛氣 其浮氣之不循經者，爲衛氣
	靈樞·邪客 衛氣者，出其悍氣之慄疾，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
東醫寶鑑	靈樞·通天 其衛氣瀦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氣·氣生於穀 榮在脈中 衛在脈外
	脈·脈字有義 榮行脈中 衛行脈外

Table 3. The Function of Nutrient Qi(營氣) recorded in the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Book	Function
黃帝內經	素問·痺論 榮者水穀之精氣也，和調於五藏，灑陳於六府，乃能入於脈也，故循脈上下，貫五藏絡六府也。故衛氣已平，營氣乃滿，而經脈大盛
	靈樞·經脈 人受氣於穀，穀入于胃，以傳與肺，五藏六府，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
	靈樞·營衛生會 乃化而爲血，以奉生身，莫貴于此，故獨得行于經隧，命曰營氣
	靈樞·營衛生會 營衛者精氣也
	靈樞·天年 五藏堅固，血脈和調，肌肉解利，皮膚緻密，營衛之行，不失其常，呼吸微徐，氣以度行，六府化穀，津液布揚，各如其常，故能長久
	靈樞·邪客 營氣者，泌其津液，注之于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
東醫寶鑑	氣·氣生於穀 『靈樞』曰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 爲榮 濁者 爲衛
	血·陰血生於水穀 『內經』曰 榮者 水穀之精氣也。和調於五藏 灑陳於六府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 貫五藏 絡六府也。

氣와衛氣를 한 번에 언급하여 둘의 기능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넘어간다. 『素問·痺論』과 『東醫寶鑑·氣·氣爲衛 衛於外』에서는衛氣를水穀之悍氣라 하며 성질이慄疾滑利하여脈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皮膚,分肉,盲膜을 지나胸腹으로 퍼진다고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와 『東醫寶鑑·氣·氣生於穀』에서는衛氣를濁하다고 하였다. 『靈樞·本藏』과 『東醫寶鑑·氣·氣生於穀』과 『東醫寶鑑·津液·自汗』에서는衛氣가分肉을 따뜻하게 하고皮膚를 충실하게 하며腠理를 살찌우고開闔을 조절한다고 하였고, 『靈樞·本藏』에서는衛氣가 조화로우면分肉이 풀리고皮膚가 부드러워지며腠理가 치밀해진다고 하였다. 『靈樞·邪客』에서는衛氣는 성질이悍氣之慄疾하여四末,分肉,皮膚에 쉬지 않고 순행하며주간에는陽을 들고야간에는陰을 돈다고 하였고, 『靈樞·衛氣行』에서는衛氣가주간에는陽을 25바퀴 들고야간에는陰을 25바퀴를

돌고,해가 뜨면 눈으로 나오고 끝에도 눈에서 합쳐지는衛氣의一周가 있다고 하였다. 『靈樞·歲露論』에서는衛氣가 없어지면체표를 고밀하게 하지 못하여몸은 따뜻해지지 못하며分肉은 줄어들고皮膚는 이완되며腠理는 열리고毛髮은 바스라지며膳理가 성글어지고피지는 떨어져나간다고 하였고, 『東醫寶鑑·氣·單方』에서는衛氣가 충실해야分肉을 따뜻하게 하고皮膚를 충만하게 하며腠理를 살찌운다고 하였다.衛氣가水穀之悍氣로濁하며脈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皮膚를 충실하게 하며分肉을 따뜻하게 하고腠理를 살찌우고開闔을 조절하며盲膜을 지나胸腹으로 퍼진다고 한 것은『黃帝內經』과 『東醫寶鑑』 모두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이론과 임상 둘 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衛氣가分肉을 따뜻하게 하고皮膚를 충실하게 하며腠理를 살찌우고주간에는陽을 들고야간에는陰을 돈다는

Table 4. The Function of Defense Qi(衛氣) recorded in the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Book	Function
素問·痺論	衛者水穀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盲膜, 散於胸腹.
靈樞·經脈	故衛氣已平, 營氣乃滿, 而經脈大盛
靈樞·營衛生會	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靈樞·營衛生會	營衛者精氣也
靈樞·本藏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
靈樞·本藏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黃帝內經	靈樞·天年
	五藏堅固, 血脈和調, 肌肉解利, 皮膚緻密, 營衛之行, 不失其常, 呼吸微徐, 氣以度行, 六府化穀, 津液布揚, 各如其常, 故能長久
	靈樞·邪客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故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眦, 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眦,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 下至小指之間. 別者, 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 以下行至跗上, 入五指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 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靈樞·歲露論
	其衛氣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開, 毛髮殘, 膳理薄, 煙垢落
東醫寶鑑	氣·氣生於穀
	「靈樞」曰人受氣於穀穀入於胃以傳與肺五臟六腑皆以受氣其清者爲榮濁者爲衛
	氣·氣爲衛 衛於外
	「靈樞」曰衛氣者所以溫分肉而充皮膚肥腠理而司關闔故衛氣溫則形分足矣
	氣·氣爲衛 衛於外
	「內經」曰衛者水穀之悍氣也其氣慄疾活利不能入於脈也故循皮膚之中分肉之間熏於盲膜散於胸腹.
	氣·單方
	黃芪『湯液』曰實衛氣能溫分肉充皮膚肥腠理又能補上中下內外三焦之氣.
	津液·自汗
	「靈樞」曰衛氣者所以肥腠理司關闔者衛氣虛則理疎開闔無司而汗多矣

내용이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 이것이 衛氣의 주요 기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시작과 끝이 모두 눈이라는 특정한 위치를 언급한 것은 衛氣가 기능하는데 눈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衛氣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衛氣는 水穀之悍氣의 慄疾滑利한 탁한 氣로 脈 외부를 다니며 皮膚를 충실하게 하고 分肉을 따뜻하게 하며 腠理를 살찌우고 피부의 開闔을 조절하고 모발을 기르는 등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횡격막을 흥증하고 가슴과 배로 퍼진다. 해가 뜨면 눈으로 나오고 끝에도 눈에서 합쳐지는 衛氣의 一周가 있다 (Table 4).

3. 營氣와 衛氣의 ‘부위’와 ‘기능’ 정리

『黃帝內經』에서는 營氣에 대한 여러 이론이 나오는 것에 비해 『東醫寶鑑』에서는 『黃帝內經』을 출처로 하여 부위에 관한 내용 2가지, 기능에 관한 내용 2가지 내용만 나온다. 『東醫寶鑑』 특성상 임상에도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기록된 내용이므로 이를 메인으로 하여 營氣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營氣는 中焦에서 나온 水穀之精氣의 맑은 氣로 脈 내부를 다니며 脾 등 五藏을 조화롭게 하고 六府를 기르며 血로 化하여 전신을 조화롭게 하고 몸, 四末를 영양한다. 五臟六腑 중 언급된 부위는 호흡기와 脾, 소화기이다¹⁸⁾. 全身經脈을 통하여 끊임없이 循行함으로써 人體의 上下內外各個部分을 營養한다¹⁹⁾. 『黃帝內經』에서 營氣에서 營은 ‘영양, 운영’을 뜻하며 營氣는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⁰⁾. 간단하게 營氣는 ‘脈 내부, 五臟六腑 등의 몸을 돌아다니며 영양작용’을 하는 氣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3). 즉, 營氣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저장 운용 체계’인 생명현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衛氣에 대한 여러 이론이 나오는 것에 비해 『東醫寶鑑』에서는 『黃帝內經』을 출처로 하여 부위에 관한 내용 2가지, 기능에 관한 내용 5가지 내용만 나온다. 『東醫寶鑑』 특성상 임상에도 중요

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기록된 내용이므로 이를 메인으로 하여 衛氣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衛氣는 下焦에서 나온 水穀之悍氣의 慄疾滑利한 탁한 氣로 脈 외부를 다니며 해가 뜨면 눈에서 나와 皮膚를 충실하게 하고 分肉을 따뜻하게 하며 腠理를 살찌우고 피부의 開闔을 조절하고 毛髮을 기르는 등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언급된 부위는 皮膚, 毛髮, 肌肉, 사지관절, 눈, 척추¹⁷⁾ 등 體官華(五體, 五官, 五華)를 돌아다니며 온몸을 운행한다. 脈 외부를 運行하면서 그 運行은 안으로는 藏府에 이르고 밖으로는 肌表腠理에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¹⁸⁾. 段玉裁는 衛를 설명함에 “暮行夜以比直宿者. …… 韋者, 圍之 省. 圍, 守也.”라고 주해해, “衛”자가 본래 둘러싸고 돌면서 지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²¹⁾. 간단하게 衛氣는 ‘脈 외부, 皮膚, 分肉, 腠理, 눈 등의 몸을 돌아다니며 방어작용’을 하는 氣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2, 4). 즉, 衛氣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호위 체계’인 생명현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營氣와 衛氣는 인체 생명현상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저장 운용 체계’와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호위 체계’로 양대별(兩大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衛氣는 외부에 대한 생체시계로써 작동한다. 날이 밝아지면 衛氣는 睛明에서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데 腠理와 分肉과 經絡과 皮膚뿐만 아니라 內臟도 점차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여 본래의 생리기능을 발휘하고, 야간에 衛氣가 陰臟으로 들어가면 腠理와 肢體經絡이 점차 衛氣를 받지 못하여 피곤을 느끼므로 활동을 쉬고 수면에 들어가게 된다²²⁾. 즉, 일주기를 인지하는 이차 시각은 衛氣가 주관한다²⁰⁾. 이렇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衛氣가 반응하는 것을 고대인들이 脈 외부를 다니며 慄疾滑利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衛氣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꾸준히 생리기능을 하는 와중에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 반응을 하는 작동이 營氣에 비해 수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 營氣에 비해

衛氣가 운행 형식이 더 많고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黃帝內經』에서는 하루 밤낮 25도로 운행하는 것, 눈을 기준으로 6道로 나뉘는 것, 그리고 천체의 28宿에 따라 운행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주로 體表에서 인체를 호위하는 기능을 하는衛氣와 달리, 脈 내부를 주로 운행하는營氣는 筋骨을 영양하고 關節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일관되게營氣는 脈 내부를 운행하고衛氣는 脈 외부인 皮毛와 腠理 사이의 體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營氣는 脈 내부를 운행하고衛氣는 脈 외부를 운행한다고 정리를 할 경우, 자칫하면營氣와衛氣가 서로 脈 내부와 脈 외부로 격리되어 운행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衛氣와營氣의 운행이 크게 脈 내부와 脈 외부으로 갈라지기는 하지만,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함께 운행한다²³⁾. 『靈樞·營衛生會』에서 “항상營과 함께 다닌다(常與營俱行)”라고 기록하고 있다.衛氣와營氣 모두 十二經으로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營氣가 經隧를 循行하기는 하지만 항상 經隧內에서만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經隧內의營氣가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일부는 經隧內에서 계속 循行하는 것처럼營氣의 일부는 經隧內를 주야 50回 循行할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衛氣와 더불어 行하는 것이다²⁰⁾.衛氣도 운행에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營氣와 함께 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낮에는陽에서 다니고 밤에는陰에서 다니는 것이다. 셋째는 상술한 순환에 참여하지 않고 흩어져 다니는 것이다²¹⁾.營氣와衛氣가 완전히 분리되어 脈 내부와 脈 외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營氣는 脈 내부를 주로 운행하지만衛氣와 함께 脈 외부에서도 운행하고²³⁾衛氣도 脈 외부를 주로 운행하지만 脈 내부에서도 운행하는 것이다.營氣와衛氣는 무관하게 循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循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4. 내장계(Visceral Body)와 체벽계(Somatic Body)

1) 내장계와 체벽계의 정의

지구상의 생명체가 맨 처음 등장한 시기는 약 38억 50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⁴⁾. 바다에서 원시 생명체가 나타난 후, 식물이 먼저 나타나고 후에 동물이 나타났다. 사람도 식물성 기관(vegetative organ)이라 불리는 내장계(Visceral Body)와 동물성 기관(animal organ)이라 불리는 체벽계(Somatic Body)로 구분이 된다¹¹⁾. 미키 시게오의 책 『생명과 리듬』에서 내장계(Visceral Body)를 식물과 동물을 모두 아우르며, 생물 본래의 활동인 ‘영양-생식’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였다. 크게 ‘영양계’와 ‘생식계’로 나누어지는데, 영양계는 몸의 정중앙을 관통하여 입과 항문의 양끝을 연결하는 장관(腸管), 배와 등에 위치하며 장관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혈관(血管), 체내에서 생성된 배설물을 모으는 체강과 체강에서 체외로 배출하는 신관(腎管) 등 세 종류의 관으로 이루어진다. 장관에서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여러 기관이, 혈관에서는 심장을 중심으로 한 동맥계와 정맥계가, 신관에서는 비뇨 기관이 발달한다.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평생을 활동한다. 생식계는 개체의 성 성숙과 함께 발달하는데, 체강의 꼬트머리에 정소와 난소가 자라나고, 신관이 정관과 난관으로 쓰인다.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생식 기관이 형성된다. 이에 반하여, 체벽계(Somatic Body)는 동물에만 존재하는 ‘감각-운동’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였다. 감각계, 신경계, 근육계는 식물의 몸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체표를 뒤덮는 외피층, 외피층과 근육층을 연결하는 신경층, 수축하며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층의 3층 구조로 구성되고, 몸 전체에서 바깥쪽을 이루는 체벽계를 형성한다. 동물의 진화에 따라 외피층에서는 눈, 코, 귀 등의 감각기관이, 신경층에서는 뇌, 척수의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말초 신경계, 근육층에서는 배와 등의 체간근과 팔다

리의 체지근이 각각 형성된다. 인체의 개체 운동을 담당하는 체벽계 근육은 민첩하고 빠르고 순발력이 있지만 쉽게 지쳐서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2) 내장계와 체벽계의 구분

내장계든 체벽계든 둘 다 근육과 신경,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쪽 대동맥에서 나온 동맥은 내장계로 향하는 내장동맥과 체벽계로 향하는 체벽동맥으로 나뉜다. 운동할 때는 피가 위나 신장 등 내장계로 가지 않고 모두 체벽계로 쏠리는 반면에 내장계의 흡수와 배설에 집중해야 할 때는 혈액이 체벽계를 떠나 내장계로 모인다. 내장동맥과 체벽동맥 중 어디에 얼마만큼의 혈액을 보낼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교감신경계이다. 척수에서 나온 교감신경이 내장동맥을 지배하는 복강신경절을 자극할지, 체벽동맥을 지배하는 체간신경절을 자극할지를 정한다. 복강신경절은 소화-흡수 기능을 지탱하는 혈액 흐름의 중요한 조절 중추로 동맥의 가지 부위를 좌우에서 에워싸고 있고, 체간신경절은 갈비뼈와 일치하며 좌우에 하나씩 덩어리가 붙어있다. 이 두 신경절이 협력해서 ‘흡수-배설’이라는 식물적 기능과 ‘감각-운동’이라는 동물적 기능을 조화롭게 꾸려간다. 복강신경절은 부교감신경의 대표인 미주신경의 가지가 지나가고, 체간신경절은 교감신경이 지나간다. 즉, 중추신경계를 매개로 내장계와 체벽계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는 셈이다. 내장계의 통증과 체벽계의 통증도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통증으로 다른 뇌 회로를 통해 통증이 인코딩된다²⁵⁾.

그러나 내장계와 체벽계는 100%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은 식물과 다르게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벽계가 발생된 것이다. 즉, 체벽계는 ‘영양-생식’이라는 생물 본래의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 움직이게 개발된 기관으로 체벽계는 내장계가 공급하는 물질 및 에너지의 기반 위에서 인체를 대외적,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게다가 내장계와 체벽계가 같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도 있다. 호흡근

으로 예를 들면, 호흡을 할 때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내장계를 사용하는 호흡이 있고, 의식적으로 체벽계를 조절해서 하는 호흡이 있다.

5. 營·衛氣와 내장계·체벽계의 관련성 비교

1) 營氣와 내장계의 공간적 유사성

營氣는 中焦에서 나와 脈 내부를 다니며 血, 호흡기, 脾, 소화기, 脈 등 藏府를 돌아다니며 전신을 운행한다. 내장계도 공간적으로 몸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여러 기관인 장관(腸管),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장관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혈관(血管),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비뇨 기관의 신관(腎管)으로 나뉜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營氣와 내장계는 공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營氣와 내장계의 기능적 유사성

營氣는 간단하게 영양작용을 하는 氣이다. 營氣는 水穀之精氣의 맑은 氣로 五藏을 조화롭게 하고 六府를 기르며 전신을 조화롭게 하고 몸, 四末를 영양한다. 내장계도 ‘영양-생식’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또 營氣는 陰分과 陽分의 구분이 없이 脈 내부를 흘러 항상 일정하게 인체를 영양하고, 營氣가 十二經脈의 水太陰肺經에서 足厥陰肝經에 이르는 고리와 같은 경로를 끊임없이 항상 순환한다는 이론에는 논란이 없다⁵⁾. 내장계도 항상성 유지를 위해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평생을 활동한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營氣와 내장계는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衛氣와 체벽계의 공간적 유사성

衛氣는 下焦에서 나와 脈 외부를 다니며 氣, 分肉, 皮膚, 四末, 사지관절, 눈, 척추¹⁷⁾ 등 體官華(五體, 五官, 五華)를 돌아다니며 전신을 운행한다. 체벽계도 공간적으로 눈, 코, 귀 등의 감각기관을 포함한 체표를 뒤덮는 외피층, 외피층과 근육층을 연결하는 뇌,

척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포함된 신경층, 수축하며 운동을 담당하는 體幹筋과 體肢筋의 근육층으로 나뉜다. 게다가 체벽동맥을 지배하는 체간신경절이 갈비뼈와 일치되게 척추 옆으로 좌우에 하나씩 존재하는데, 『素問·瘧論』*1)과 『靈樞·歲露論』*2)에 瘧疾이 들어오면 척추를 따라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衛氣와 만나 발작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衛氣와 체벽계는 공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 衛氣와 체벽계의 기능적 유사성

衛氣는 간단하게 방어작용을 하는 氣이다. 衛氣는 水穀之悍氣의 慄疾滑利한 탁한 氣로 해가 뜨면 눈에서 나와 皮膚를 충실하게 하고 分肉을 따뜻하게 하며 腠理를 살피우고 皮膚의 開闔을 조절하고 毛髮을 기르는 등 몸을 보호한다. 체벽계도 ‘감각-운동’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衛氣의 운행은 營氣와 함께 다니는 것도 있지만 陽分과 陰分을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는 營氣와는 다르게 衛氣는 주간에는 陽分을 야간에는 陰分을 각각 25회씩 순환한다. 衛氣가 脈외부를 순환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黃帝內經』에서도 일치되지 않고 있고 衛氣의 순환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늘 똑같은 營氣에 비해 衛氣는 인체를 돌아다니며 꾸준히 생리기능을 하는 와중에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여 방어작용을 위해 氣血을 조절한다. 체벽계도 꾸준히 일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지쳐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사용하기는 힘들다. 『素問·痺論』에서 衛者水穀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라 하였고, 인체의 개체 운동을 담당하는 체벽계 근육도 민첩하고 빠르고 순발력이 있다. 『靈樞·衛氣行』*3)에서 衛氣가 눈에서 시작하고(陽氣出於目) 눈에서 합쳐진다(復合於目)고 하였는데 衛氣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인체 감각 중 전체 정보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 기관²⁶⁾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벽계 중 외피층에 감각기관이 있다. 이러한 감각기관들은 감각신경이 많고 자율신경계가 대부분 작용하는데, 그 중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이에 대처해서 신체의 방어, 공격, 도피에 필요한 에너지를 동원한다. Fight or Flight 작용에 관여하는데 이런 반응을 위해 팔다리 근육의 세동맥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소화관의 세동맥을 수축시킨다. 이렇게 감각신경으로 대표되는 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생명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衛氣와 체벽계는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5) 營·衛氣와 내장계·체벽계

인체 생명현상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저장

*1) 帝曰 善。其作日晏與其日早者，何氣使然？岐伯曰 邪氣客於風府，循膂而下，衛氣一日一夜大會於風府，其明日，日下一節，故其作也晏。此先客於脊背也，每至於風府則腠理開，腠理開則邪氣入，邪氣入則病作，以此日作稍益晏也。其出於風府，日下一節，二十五日，下至骹骨，二十六日，入於脊內，注於伏膂之脈，其氣上行，九日，出於缺盆之中，其氣日高，故作日早也。其間日發者，由邪氣內薄於五藏，橫連募原也，其道遠，其氣深，其行遲，不能與衛氣俱行，不得皆出，故間日乃作也。帝曰 夫子言衛氣每至於風府，腠理乃發，發則邪氣入，入則病作，今衛氣日下一節，其氣之發也，不當風府，其日作者奈何？岐伯曰 此邪氣客於頭項，循膂而下者也，故虛實不同，邪中異所，則不當其風府也。故邪中於頭項者，氣至頭項而病；中於背者，氣至背而病；中於腰脊者，氣至腰脊而病；中於手足者，氣至手足而病。衛氣之所在，與邪氣相合，則病作。故風無常府，衛氣之所發，必開其腠理，邪氣之所合，則其府也。帝曰 善。夫風之與瘧也，相似同類，而風獨常在，瘧得有時而休者，何也？岐伯曰 風氣留其處，故常在；瘧氣隨絡流以內薄，故衛氣應乃作

*2) 黃帝問於岐伯曰 經言夏日傷暑，秋病瘧，瘧之發以時，其故何也？岐伯對曰 邪客於風府，病循膂而下，衛氣一日一夜，常大會於風府，其明日日下一節，故其日作晏。此其先客於脊背也，故每至於風府則腠理開，腠理開則邪氣入，邪氣入則病作，此所以日作向晏也。衛氣之行風府，日下一節，二十一日下至尾底，二十二日入脊內，注於伏膂之脈，其行九日，出於缺盆之中，其氣上行，故其病稍益至

*3) 黃帝問於岐伯曰 願聞衛氣之行，出入之合，何如？伯高曰 歲有十二月，日有十二辰，子午爲經，卯酉爲緯，天周二十八宿，而一面七星，四七二十八星，房昴爲緯，虛張爲經，是故房至畢爲陽，昴至心爲陰，陽主晝，陰主夜。故衛氣之行，一日一夜五十周於身，晝日行於陽二十五周，夜行於陰二十五周，周於五藏。是故平旦陰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於目銳眦，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眦，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別者，以上至耳前，合於頰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入五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周

운용 체계'와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호위 체계'로 양대별(兩大別)한 것을 한의학에서는 營氣와 衛氣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서양의학에서도 인체 생명현상을 생물 본래의 활동인 영양·생식을 관장하는 기관, 내장계와 인체를 대외적,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동물에만 존재하는 감각·운동을 관장하는 기관, 체벽계로 양대별(兩大別)한 것이다.

내장계와 체벽계는 편의상 해당 작용을 하는 기관을 모아놓은 것이다. 해부적인 구조를 구분한 것이므로 營氣의 영역, 衛氣의 영역이라는 단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營氣의 영역은 내장계와, 衛氣의 영역은 체벽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Table 5. Nutrient Qi(營氣), Defense Qi(衛氣) and Visceral Body, Somatic Body

	Korean Medicine	Anatomic
Similarity	Nutrient Qi(營氣)	Visceral Body(내장계)
	Defense Qi(衛氣)	Somatic Body(체벽계)

고 찰

『東醫寶鑑』에서 『黃帝內經』을 출처라고 밝혔지만 막상 내용을 찾아보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東醫寶鑑·氣·氣爲衛 衛於外』와 『東醫寶鑑·津液·自汗』의 내용은 출처가 『黃帝內經』이지만 다른 부분처럼 완전히 똑같이 가져온 것은 아니고 뒤에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 중간에 삭제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東醫寶鑑』이 출처를 밝혔음에도 『黃帝內經』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미흡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黃帝內經』 이후의 임상가들의 營衛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를 접하기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보다 많은 서적을 섭렵하지 못한 부분은 본 논문의 한계일 수 있으나, 원전인 『黃帝內經』과 대표 임상서인 『東醫寶鑑』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 營氣와 衛氣에 대한 중심적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의학은 특성상 서양의학과는 달리 질병을 존재로 보지 않고 인체의 특정한 시간의 전체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증상들(현상)이 질병 그 자체이며, 증상들에 대한 해석과 용약이 한의학적 진단이다²⁷⁾. 衛氣를 예로 들어 衛氣가 脈 외부(脈外)를 다닌다는 내용에서 체내 깊숙한 곳의 脈 외부는 衛氣로 봐야 할지, 내부에 있으니 營氣로 봐야 할지 일견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위치에 대한 논란은 한의학 서적에서 제시한 기능을 기반으로 재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한의학을 제정했을 당시의 생명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다. 衛氣의 기능을 하는 생명현상을 구현한 그 무엇이 衛氣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혈액(Blood)만 해도 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피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다 血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血은 보통 영양분을 공급하는 營氣로 보지만,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통한 인체 방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은 衛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혈액 중 적혈구와 혈장의 미네랄과 이온, 글루코스 등 탄수화물과 지질, 아미노산 등 단백질과 호르몬 등 저분자·고분자 물질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저장 운용 체계라는 측면에서 營氣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혈액 중 백혈구와 혈장의 면역글로블린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호위 체계라는 측면에서 衛氣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재조명하면 脈 내부 또는 脈 외부 보다는 營氣的 생명현상인지, 衛氣的 생명현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氣血津液의 생명현상을 구분한다면 인체 생리학 전반을 營衛의 기능으로 양대별하게 재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양의학적 구조물 하나하나를 한의학적 단어로 1대1 대응시키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생명현상을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각신경으로 대표되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신경계의 생명현상은

衛氣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정신작용을 등 모든 신경계의 생명현상이 衛氣와 유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현상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것을 현대에는 보다 관련이 높은 구조적인 부분을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와 기능은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현대적인 구조와 기능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을 재해석한다면 한의학의 현대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營氣와 衛氣는 모두 섭취된 穀氣에서 화생된 精氣로부터 생성된다. 營氣는 脈 내부를 중심으로 다니며 전반적으로 五臟六腑 등 몸을 영양하는 작용을 하고, 衛氣는 脈 외부를 중심으로 다니며 전반적으로 피부와 分肉, 腠理를 조절하고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는 식물성 기관(vegetative organ)이라 불리는 내장계(Visceral Body)와 동물성 기관(animal organ)이라 불리는 체벽계(Somatic Body)로 구분된다. 내장계는 ‘영양-생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장관(腸管), 혈관(血管), 신관(腎管)으로 나뉘지고, 체벽계는 ‘감각-운동’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체표를 뒤덮는 외피층, 외피층과 근육층을 연결하는 신경층, 수축하며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층의 3층 구조로 나뉘진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營氣는 내장계와, 衛氣는 체벽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결은 인체 생리기능을 영양과 운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榮衛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의학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Hong SW, Um JH, Lee SY. (2002). A Study of Literature on the Ying Qi and Wei Qi.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19(2). 87-96
- Cha YS, Kim KH, Yoon JH. (1994). A study of source Qi-ancestral Qi-nutrient Qi-defense Qi. The Journal of Dong-Guk Oriental Medicine. 3. 379-396
- Shin SW. (2019). A Study on the Meaning of Zong Qi-A Reconsideration of Existing Discussion. Journal of Korean Med Classics. 32(3). 147-166. <https://doi.org/10.14369/jkmc.2019.32.3.147>
- Lee TK, Kim KS, Kang JS, et al. (2013). Relation of Jīn jié(根結) and Defensive Qi(衛氣). Journal of Hawthwa Medicine. 1. 23-36
- Pack SY. (2015). Circulating Pattern of Defense Qi Based on Pyobon(標本), Geungyul(根結), Kika(氣街).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9(2). 133-142. <https://doi.org/10.15188/kjopp.2015.04.29.2.133>
- So YS, Roh Stella, Ryou JK, Lee YJ, Jeong HY, Keum KS. (2006). A Study on the Young Ki(營氣) of the Young Chu(靈樞).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3). 293-304
- Kim KU, Moon JK. (2014). HuangdiNeijing (黃帝內經) 1 Edition. Seoul;Bub In publisher.
- Huh J. (2010). Donggeuibogam(東醫寶鑑) 4 Edition. Hadong-gun;Donggeuibogam publisher.
- Romer, Sherwood A. (1972). The vertebrate as a dual animal—somatic and visceral. Evolutionary biology. 121-156
- Nomaksteinsky M, Kassabov S, Chettouh Z, Stoeklé H, Bonnaud L, Fortin G et al. (2013). Ancient origin of somatic and visceral neurons. BMC Biology 11. 53.
- Shigeo M. (2017). Life and rhythm-Origin of life through natural philosophy. Seoul:Ocean publisher
- Wirsich J, Perry A, Ridley B, et al. (2016). Whole-brain analytic measures of network

- communication reveal increased structure-function correlation in right temporal lobe epilepsy. *NeuroImage: Clinical*. 11. 707-718. <https://doi.org/10.1016/j.nicl.2016.05.010>
13. Kim MH, Kim BS. (2017). Study on the Concept and Its Structure of Visceral System in Curren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31(6). 305~312. <https://doi.org/10.15188/kjopp.2017.12.31.6.305>
 14. Sherwood L. (2013). *Essential of physiology*. 4th edition. Seoul:Science plus.
 15. Seong WY. (2013). A Study of Chiljeong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4(4). 451-468. <http://dx.doi.org/10.7231/jon.2013.24.4.451>
 16. Cho KH, Kim TH, Jin C, Lee JE, Kwon SW. (2018). The Literary Trends of Herbal Prescription Ukgan-san and its Application in Moder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39(3). 17-27. <http://dx.doi.org/10.13048/jkm.18021>
 17. Shigeo M. (2014). *World of the fetus*. 1st edition. Seoul:Badabooks.
 18. Ju DH. (2020). A Modern Consideration of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from Visceral Body and Somatic Body. Daejeon: Daejeon University
 19. Song JC, Keum KS, Jung HJ, Eom DM. (2010). Review on Formation of Nutrient Qi.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4(5). 779-783.
 20. Kim JS, Hwang MS, Baek JU. (2010). A study on the examples of character ‘Yeong(營)’ and ‘Yeong(榮)’.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3(2). 125-139
 21. Sin SS. (2000). *The Medical Research of Qi*.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481.
 22. Lee SM, Ji KY, Yang HS. (2005). Analyses on Physiological Meanings of Yin Yang through Comparison of Ying-Wei Theory and Sleep-Awakening System.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19(5). 1154-1161
 23. Bang JK.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ptom of Shanghanlun(傷寒論) and the Nutritive-Gi(營氣).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0(1). 211-221. <https://doi.org/10.14369/skmc.2017.30.1.211>
 24. Bryson W. (2003).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Seoul:kachi books.
 25. Lukas V. O, Philip A. K, Patrick D, Huynh G. L, Els P, Paul E et al. (2020). Common and distinct neural representations of aversive somatic and visceral stimulation in healthy individuals. *Nature Communications*. 11(1). 5939. <https://doi.org/10.21203/rs.3.rs-39193/v1>
 26. Kim WH, Lee MS, Sohn JW. (1993). Neural Network an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8(3). 66-76. <https://doi.org/10.22648/ETRI.1993.J.080307>
 27. Park KM, Park JH. (2002). A Methodology for Representation of Clinical Data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16(5). 845-850.

ORCID

주다현 <https://orcid.org/0000-0002-6227-1231>

김병수 <https://orcid.org/0000-0003-0961-9427>